

# 문학작품 영한번역문에 나타나는 여성 문체 연구 — 한자어 사용 중심으로 —

김 동 미  
(서울신대)

## 1. 서론

여성과 남성의 언어 차이를 토대로 여성 문체 및 여성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가는 드보라 태닌(Deborah Tannen 56)과 존 그레이(John Gray 78)가 있다. 태닌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性)방언을 사용하며, 남녀 간의 충돌과 갈등의 90%는 대화방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간주한다. 또한 “남녀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각 면에서도 상이하며, 여성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려 하는 반면, 계급구조에 익숙한 남성들은 대화를 통해 독립을 획득하려 한다 (Tannen 57)고 주장하였다. 그레이는 “인간은 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언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대화하면 서로간의 오해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Gray 79)고 강조하였다.

루이스 폰 플로토우(Luise Von Flotow 12)는 여성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 특유의 번역 문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 중 한 가지는 여성 번역가들이 실험적 페미니스트(experimental feminist)적 입장에서 번역할 때 나타나는 문체이다. 이들 여성 번역가들은 전통 언어가 여성을 억압하고 종속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의 언어로 대체되어야 하며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 다음 특정 단어의 철자를 굵게 하여 그 단어가 여성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단어의 특정 철자를 크게 함으로써 그 단어가 여성 차별적 단어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간섭주의적 페미니스트(interventionist feminist)적 입장에서 번역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체이다. 이러한 여성의 번역 문체는 “여성의 권리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에 맞게 번역가가 원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번역가들은 이러한 문체로 번역함으로써 가부장적 언어에 대항하며 그 권위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권에서는 이미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빈번히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고 이러한 연구에 이어서 여성의 번역 문체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의 문체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번역 문체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의 연구와 관련해서 영한 문학번역에서 여성어나 여성 문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의 번역문체 연구를 착수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다섯 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제인 에어』(Jane Eyre),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 등 영국 작가의 작품 세편과,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Sea), 『위대한 갯츠비』(The Great Gatsby) 등 미국 작가의 작품 두 편 등이다. 이들 다섯 편의 작품들 중 여성 작가의 작품은 세편이고 남성 작가의 작품은 두 편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는 원로 남성 번역가인 황중호, 이경식과 여성 번역가 이혜리, 홍미란의 번역 작품을,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에서는 남성 번역가 김성구와 박종학의 번역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수연과 김문영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갯즈비』의 경우에는 남성 번역가 김의승과 김육동의 번역 작품이며 여성 번역가 김연희, 유혜경의 번역 작품으로, 제인 오스틴(J. Austen)의 『오만과 편견』에서는 남성 번역가 홍건식과 여성 번역가 정은경의 작품을, 에밀리 브론테(E. Brontë)의 『폭풍의 언덕』은 남성 번역가 안동민과 여성 번역가 김은정의 작품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녀 성별에 따른 번역 문체의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휘에 있어서 한자 사용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겠다. 특히, 원천 텍스트의 동일한 어휘를 한자어로 번역한 경우와 한글로 번역한 경우를 찾아내어 그것이 번역가의 성별에 따라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 2. 여성적 문체와 관련된 이론

### 2.1 페미니스트 번역 이론

번역시에 여성에게 나타나는 번역 문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있다면 이를 먼저 선행 연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번역문체를 순차적으로 연구하겠다. 여성 번역 문체를 심도 있게 선행연구하기 위해서는 번역에서 다루는 여성어적 특성과 언어에서 다루는 여성어적 문체 특성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플로토우(12)에 의하면 여성 번역가들이 번역을 할 때에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은 실험적 페미니스트 번역과 간접주의적 페미니스트 번역 등 두 가지 번역 방법의 결과이다. 1970년대 시작된 실험적 페미니스트 번역은 “기존의 학교, 대학, 출판사, 대중매체, 사전, 문학 대작 등에서 사용된 전통 언어를 침식하고 뒤엎는 것 (Flotow 12)을 의미한다. 플로토우는 전통언어란 개혁되어야만 하는 언어이며 특히 새로운 여성 언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적 번역 원칙 하에서 전통 언어는 여성의 억압과 종속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실험적 페미니스트 작품의 작가 및 번역가들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철자, 새로운 문법 구조,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부장적 전통언어를 바꾸려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셰리 사이먼(Sherry Simon 112)은 로트비니 하우드(Lotbinière-Harwood)의 번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ne’이라는 단어에서 스펠링 ‘e’를 굵은 글씨로 사용하여 여성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HuMan Rights의 M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단어에 성차별적 요소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니콜 브로사드(Nicole Brossard 34)와 메리 데일리(Mary Daly 89)는 대표적인 실험적 페미니스트 작가이다. 데일리는 언어유희를 통하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어휘를 포함한 언어 전반에 걸쳐 개선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의 고전적인 저서 부인병학, 생태학(*Gyn/ Ecology* 97)은 대표적인 예이다. 데일리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단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재구축했다. 이를테면 ‘remember’(기억하다)를 “다시 멤버가 된다 는 뜻의 “re-member 로, ‘chronological’(역사적)을 “chrono-logical, 즉 “나이든 자의 논리 로, ‘therapist’(정신치료)를 강간범의 뜻인 “the-rapist 로, ‘amaze’(놀람)를 “a maze , 즉 미로 등의 뜻으로 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어유희를 즐겼다.

실험적 페미니스트 번역 방법은 언어를 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를 창출해내었으며 여성 번역가들로 하여금 이론적·기술적인 면에서 기존의 언어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었다. 이는 곧 실험적 페미니스트 번역을 통하여 여성 번역가들이 남성 번역가의 언어 세계와는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언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섭주의적 페미니스트 번역(interventionist feminist translation)은 여성 번역가들이 여러 신장과 관련된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원천 텍스트를 번역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번역 방법을 지칭한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여성 번역가들이 원천 텍스트를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중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미권에서 시작된 여성 번역 문체 특성을 플로투의 주장에 의해 살펴보면 목표 텍스트에 그 유형이 남성과는 다르게 표기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형태를 다르게 하여 번역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 및 의도를 번역시

에 실어서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페미니스트 언어 이론

앞서 여성 번역 문체를 살펴보았다. 여성이 목표 텍스트에 남성과 다르게 번역한다는 플로투우(78)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번역을 할 때에 여성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번역에 실기 위해서였다고 연구하였다. 그러면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여성의 숨은 의도나 언어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성어의 속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성 번역 문체를 연구하기 위한 선행연구 두 번째로 언어학에서 다루는 여성어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드보라 카메론(Deborah Cameron 162)은 힘 있는 집단이 “경제적 자원을 사물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물화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힘이 있는 집단은 힘없는 “종속적 집단을 잠재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목소리를 상실한 여성들이 남성의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표현하지 않음은 남성 권위의 그늘에 묻혀 사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언어학자 체리스 크라마레(Cheris Kramarae 77)에 의하면 “여성들은 공적 장소에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남성이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란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매우 어렵고,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지배자 집단의 표현과 의사소통 양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의 그것과는 다른 어떤 표현 방법과 의사소통 양식을 애써 탐구한다 (Kramarae 79)고 언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크라마레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격식 바른 회화 방식이나 전통적인 남성 우위의 정치적 상황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여성 특유의 문체를 통하여 여성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소설이나 일기를 이용하였다(Kramarae 79). 여성적 문체와 관련하여 콜로드니(75)는 남성의 글쓰기와 여성의 글쓰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문체적 특징으로 “역전을 드는데 이는 여성 작가 소설의 언어 내에 잠재해 있는 전복적 전략을 말한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볼 때 여성어의 출현과 보급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여성들만의 언어 (Simon 58)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데 있

다.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차용한 번역 방법은 직접적이고 권위적인 남성 언어에 의해 억압되고 소외당해온 여성들의 언어 회복 뿐 아니라 여성과 같은 약자들의 해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여성 번역가들은 여성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형성을 통하여 당시 남성의 가부장적 문화에 저항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사이먼은 이러한 여성 번역가들의 활동을 “반 노예 작품 활동 (Simon 60)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는 곧 “여성 번역가들이 가부장적 남성 언어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Simon 63)는 점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한 마디로 여성어에 대한 여성 (번역)작가들의 집념은 그것을 통해 전통적인 남성 언어의 권위를 심문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2.3 여성어

### 2.3.1 여성어와 여성의 정체성

남성 언어가 사회적 권위를 지닌 지배 언어라고 한다면 여성어는 이러한 남성 중심의 언어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약자인 피지배 언어는 강자인 지배 언어에 흡수됨으로써 언어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번역가를 포함한 여성 작가들은 언어적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여성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번역과 같은 언어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전개하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리 카디날(Marie Cardinal 56)은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언어를 상대하거나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정형화된 언어에서 갑갑함과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마리나 야겔로(Marina Yaguello 78)도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르게 느끼고 말하며 단어의 의미도 약간씩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시몬 드 보바르(Simon de Beauvoir 32)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는 “비록 어떤 언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언어를 만들어온 남성의 가면을 쓰고 있으며 따라서 언어는 남성의 가치관, 남성의 주장, 남성의 편견을 반영할 뿐이다 (Beauvoir 32)라며 사회가 남성위주의

언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지배해온 남성 위주의 언어에 의해 지배되며 주변 언어로 전락해온 여성들의 언어는 이제 그 주변부적 위치를 탈피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남성 언어와 그것으로 표현되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을 심문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적법한 하나의 언어로 거듭나려는 노력과 피지배 언어, 다시 말해 주변언어 관계가 되어 남성위주의 언어가 움직이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언어적 차이는 점차적으로 여성 스스로의 언어 위치와 정체를 찾고자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2.3.2 한국어 여성어의 어휘적 특성

이번 절에서는 한국어 여성어의 어휘·문법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텍스트에서 동일한 원천 텍스트의 어휘나 문장을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떠한 문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지, 또 성에 따른 어휘적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용될 것이다. 이석규·김선희(117)에 의하면 한국 여성어의 어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것’보다는 ‘따른 것,’ ‘조금’보다는 ‘쪼금,’ ‘작다’를 ‘작따’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비교적 남성보다 경음을 많이 사용한다.

둘째, 여성이 ‘ㄹ’첨가를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여성은 ‘이거로’를 ‘요걸로,’ ‘그러려고’를 ‘그럴러구’ 혹은 ‘그럴라구’ 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남성의 경우보다 많이 발견된다. ‘안올래다가,’ ‘알아볼라구’ 등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셋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치?’, ‘근데,’ ‘어쩐,’ ‘-쪼,’ ‘-잖아요’ 등의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작고 귀여운 어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시사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국 여성어의 중요한 어휘적 특성중 하나이다. 여성어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음성 모음이나 중성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교체되어 작고 귀여운 어감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요것,’ ‘고것,’ ‘조것,’ ‘요기,’ ‘고기,’ ‘조기,’ ‘요거,’ ‘고거,’ ‘조거,’ ‘요게,’ ‘고게,’ ‘조게’ 등의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구현정(270)은 “여성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관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런데?’, 동감을 표현하는 ‘그러게 말야’, ‘그럼,’ 동정을 나타내는 ‘저런,’ ‘쯧쯧,’ ‘어쩌나?’, 기쁨을 표현하는 ‘참 잘됐다,’ ‘멋지다,’ 그리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어머나!’, ‘정말이야?’ 등의 표현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홍(40)은 여성들이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난처함을 표시하는 ‘난 몰라,’ ‘나 어떻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애매함을 나타내는 어휘로 ‘글쎄,’ ‘몰라,’ ‘몰라몰라’ 등을 즐겨 사용하며, ‘아유,’ ‘아이’ 등 감탄을 표현하는 어휘를 남성에 비해 자주 사용한다. 그는 또 한국 여성들은 ‘피,’ ‘흥’ 등의 질투를 나타내는 표현과 ‘아니야’ 등과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미워,’ ‘깍쟁이’ 등의 반의어를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서 ‘맞아,’ ‘있잖아’ 등과 같은 맞장구를 치는 표현과 ‘뭘,’ ‘음’ 과 같은 군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한다.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욕설과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계집애,’ ‘못된 것’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임규홍(42)은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금기어는 많이 쓰나 욕설은 적게 쓰고, 남성은 여성보다 속어를 더 잘 만들고 욕설을 더 많이 사용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미쳤어요?’, ‘웬수,’ ‘제 정신이요?’ 와 같은 일종의 극한적인 금기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임규홍(34)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장영희(90)의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유어는 남성의 약 50%, 여성의 약 5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자어는 남성의 약 31%, 여성의 약 29%가 사용하였고, 외래어는 남성의 약 4%, 여성의 약 3%가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외래어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며 고유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 3. 목표 텍스트에 나타난 성에 따른 문체의 차이: 한자어 사용

장영희(2000 90)는 한국어 여성어 특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자어와 외래어 사용 빈도가 월등히 낮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한자어 사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번역과는 무관하게 여성 언어의 특징으로만 그치는가를 각 작품들을 통하여 검토하겠다.

### 『제인 에어』

<ST1>

For me, the watches of that long night passed in ghastly wakefulness;  
(20)

<TT1> MT-나는 기나긴 밤을 뜯눈으로 새웠다. 귀와 눈과 마음은 공포로 긴장되었다. (박종학 26)

<TT2> FT-나는 기나긴 한밤을 뜯눈으로 무시무시하게 새웠다. (김문영 32)

위에 인용한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번역가의 성별의 차이에 따라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ghastly’라는 동일한 어휘를 남성은 ‘공포’라는 한자어를 사용해 번역한 반면 여성은 ‘무시무시하게’라는 순 우리말 반복 부사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 『노인과 바다』

<ST1>

We do not have them. Can it be as painful as the spur of the fighting  
cock in one's heel? (68)

<TT1> MT-우리는 이품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발톱으로 차면 서 싸우는 투계(鬪鷄)만큼 아플까? (황중호 77)

<TT2> FT-우리는 그런 병에 안 걸리는데, 그것은 싸움닭의 박차를 우리의 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플까? (이혜리 63)

<ST1>에서 남성은 원문의 ‘fighting cock’을 ‘투계’라는 한자어로 번역하였고 여성은 ‘싸움닭’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남성은 한자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압축한 번역을 하였고 대조적으로 여성은 한자어 대신 이해하기

쉽게 고유어로 풀어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황중호와 같은 원로 남성 번역가나 앞서 언급한 상대적으로 남성 번역가 박종학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남성의 한자어 선호 경향이 통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실례라고 하겠다.

여성어가 대화 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를 엮어 가려고 하는 여성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한자어의 기피 현상은 이러한 여성의 의도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렵고 압축적이며 격식적인 한자어 보다 어조를 낮추어 표현하기 위해서 고유어를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사용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두 작품을 통하여 한자어의 사용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번역 문체를 살펴보았다. 더 많은 작품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번역 문체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으로는 『위대한 갯츠비』를 토대로 하겠으며 남성 번역가 김의승, 여성 번역가 김연희의 번역 결과물을 가지고 검증하겠다.

### 『위대한 갯츠비』

<ST1>

His family were enormously wealthy. (8)

<TT1> MT-그의 집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 (김의승 13)

<TT2> FT-그의 집안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김연희 10)

<ST2>

There was the boom of a bass drum, and the voice of the orchestra leader rang out suddenly above the echolalia of the garden. (41)

<TT1> MT-그때 갑자기 베이스 드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목소리가 정원의 소음을 모두 삼키고 울려 퍼졌다. (김의승 78)

<TT2> FT-갑자기 베이스 드럼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목소리가 정원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사람들의 시끌시끌한 소리를 누르고 울려 퍼진다. (김연희 64)

<ST3>

Occasionally a line of gray cars crawls along and invisible track, gives

out a ghastly creak, and comes to rest, and immediately the ash-gray men swarm up with leaden spades..... (21)

<TT1> MT-이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선로를 따라 회색 화차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달려와서 정차하면, 곧 잿빛 노동자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 내려와서 납으로 만든 삽으로 먼지를 일으켜 ... (김의승 38)

<TT2> FT-가끔 뿌연 먼지를 일으키는 차 행렬이 끝없는 도로를 따라 들어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서면, 곧 잿빛 사람들이 납빛 삽들을 가지고 떼지어 모여들어 먼지 구름을 더욱 크게 일으켜 놓았다. (김연희 41)

위의 『위대한 갯츠비』를 통해 성에 따라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는 번역 문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1>에서 ‘enormously’를 남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로 <ST2>에서 ‘the echolalia’을 ‘소음을,’으로 <ST3>에서 ‘creak,’과 ‘men’을 ‘정차,’ ‘노동자’로 번역 하였으며, 여성은 이에 대응하는 어구들로 ‘어마어마한,’ ‘시끌시끌한 소리,’ ‘서면,’ ‘사람들이’ 로 번역하여 남성이 고유어보다 한자어를 상대적으로 더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갯츠비』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한자어를 통한 번역 문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한자어를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나머지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번역 문체 패턴이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 분석 대상은 남성 번역가 김성구와 여성 번역가 김수연의 작품이다.

### 『제인 에어』

<ST1>

...her place had been at the top of the class, but for some error of pronunciation or some inattention to stops, she was suddenly sent to the very bottom. (53)

<TT1> MT-그녀의 자리는 수업이 시작할 때에는 반 수석(首席)에 있었는데 발음을 잘못했는지 별안간 말석으로 내려갔다. (김성구 57)

<TT2> FT-그 애의 자리는 수업이 시작할 즈음에 학급의 맨 뒷자리에 있었으나 발음을 좀 잘못했는지 꿇을 데를 잘못 읽은 탓인지 갑자기 맨 아

랫자리로 내려갔다. (김수연 54)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남성은 동일한 원천 텍스트 ‘top of the class,’를 목표 텍스트에 ‘수석,’으로 번역한 반면, 여성은 ‘맨 윗자리,’로 번역하였고 ‘bottom’을 남성은 ‘말석’으로 여성은 ‘맨 아랫자리로’로 번역하였다. 두 경우 모두 여성이 한자어대신 고유어를 사용하여 쉽게 풀어 번역하였다. 이는 앞 작품들의 분석에서 발견한 여성의 번역 문체 특성과 그 궤도를 같이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어 여성어 특성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자어를 월등히 적게 사용한다는 여성어 특성과 밀접하다.

다음은 여성작가 작품 『폭풍의 언덕』에서 번역가의 성(性)에 따른 번역 문체를 한자어 사용기준으로 살펴보겠다. 분석 대상은 남성 번역가 안동민과 여성 번역가 김은정의 작품이다.

### 『폭풍의 언덕』

#### <ST1>

‘Wretched inmates!’ I ejaculated, mentally, ‘you deserve perpetual isolation from your species for your churlish inhospitality.’ (9)

<TT1> MT- ‘고약한 놈들만 살고 있군!’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렇듯 인색하게 푸대접을 하다니, 너희들은 영원히 인간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말거다.’ (안동민 16)

<TT2> FT- ‘못된 사람들 같으니!’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투덜댔다. ‘이따위로 손님 대접을 하니 평생 사람 구경도 못 하지, ...’ (김은정 10)

#### <ST2>

‘Ah, certainly- I see now; you are the favoured possessor of the beneficent fairy, I remarked, turning to my neighbour.’ (14)

<TT1> MT- “아, 역시.....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분의 자애로 남편이셨군요.” 나는 옆에 앉은 젊은이에게 말했다. (안동민 21)

<TT2> FT- “아,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상냥한 부인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하고 나는 내 옆에 앉은 젊은이를 돌아 보며 말했다. (김은정 15)

<ST3>

The little witch put a mock malignity into her beautiful eyes, and Joseph, trembling with sincere horror, hurried out praying and ejaculating ‘wicked’ as he went. (15)

<TT1> MT-이 작은 마녀가 아름다운 눈에 일부러 악의를 품은 표정을 나타내자, 조셉은 정말 공포에 사로잡힌 듯이 떨면서 기도를 하고는 “악독해 라는 말을 외치더니 허겁지겁 나가 버렸다. (안동민 24)

<TT2> FT- 귀여운 마녀가 가 아름다운 눈에 짐짓 악의를 띠는 척하니, 조셉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오 주여! 를 연발하며 나가버렸다. (김은정 17)

번역가의 성(性)에 따른 한자어 사용에 관한 번역 문체 특성은 본 작품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남성은 ‘inhospitality’를 ‘인색하게,’로, ‘favoured possessor’를 ‘자애로운 남편,’으로, ‘with sincere horror’를 ‘공포에 사로잡힌 듯이’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표현을 여성은 각각 ‘이따위로,’ ‘상냥한 부인의 주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등과 같이 번역하였다. 여성은 한자어를 훨씬 적게 사용하며 고유어로 쉽게 풀어서 목표 텍스트에 번역한다는 특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다음은 여성 번역가 정은경과 남성 번역가 홍건식의 작품인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한자어와 관련된 번역문체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오만과 편견』

<ST1>

“Design! Nonsense, how can you talk so! But it is very likely that he may fall in love with one of them, and therefore you must visit him as soon as he comes. (6)

<TT1> MT-“속셈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만 우리 애들 중의 누구 하나를 사랑하게 될 공산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 대로 당신이 방문해 주셨으면 해요. (홍건식 12)

<TT2> FT-“그럴 셈이냐구요? 답답한 말씀 좀 그만하셔요. 우리 애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골라잡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청년이

이사를 오면 바로 찾아가 보세요. (정은경 8)

<ST2>

“You mistake me, my dear. I have a high respect for your nerves. They are my old friends. I have heard you mention them with consideration these twenty years at least. (7)

<TT1> MT-“그건 오해야, 당신 신경을 굉장히 아끼고 있던 말요. 나에겐 옛 친구나 다름 바가 없으니까. 적어도 20년 동안 당신이 신경 애길 할 때마다 각별히 고려를 해가며 말하는 것을 들었소. (홍건식 13)

<TT2> FT-“아,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위한다고,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오랜 친구요. 그리고 내가 당신 신경을 얼마나 생각한다고! 적어도 20년 동안은 당신이 신경 애기를 할 때마다 무척 측은해했는걸. (정은경 9)

<ST3>

The business of her life was to get her daughters married; its solace was visiting and news. (7)

<TT1> MT-그녀의 평생에서 중요한 사업은 딸들을 출가시키는 일이며, 낙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집을 방문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나누며 지내 는 것이었다. (홍건식 14)

<TT2> FT-그녀의 평생 사업은 딸들을 시집보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웃을 방문하는 것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었다. (정은경 10)

위의 예문에서 남성은 <ST1>의 ‘he may fall in love with one of them,’ 과 ‘visit,’ <ST2>의 ‘consideration,’ <ST3>의 ‘get married’를 ‘누구 하나를 사랑하게 될 공산도,’ ‘방문해,’ ‘고려,’ ‘출가’로 번역하였고 여성은 ‘하나를 골라잡을 지,’ ‘찾아가,’ ‘생각,’ ‘시집보내는’으로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다섯 작품,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갯츠비』,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오만과 편견』의 예문 12개를 기준으로 여성 번역가 6명과 남성 번역가 6명이 한자어 사용의 빈도를 가지고 여성의 번역 문체와 남성의 번역 문체를 특징지을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작품에서 동일한 성의 다른 번역가들

에게서 공통된 번역 문체 특성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한자어를 사용하여서 의미를 압축시켜 번역하며 여성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한자어를 훨씬 적게 사용하여 번역 문체를 형성하며, 번역을 할 때에 비교적 고유어를 사용하여 풀어서 번역하는 번역 문체 특성을 띤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번역 문체 특성의 근원을 찾아보면, 한국어 여성어 특성에서 장영희(2000 90)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예를 참고 할 수 있다. 장영희(90)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자어를 비교적 적게 사용한다는 여성어의 특성을 밝혀낸 바 있다. 즉, 여성이 번역을 할 때에 이러한 여성어를 잠재적으로 적용하여 번역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자어의 사용빈도가 여성과 남성의 번역 문체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여성과 남성이 번역할 때 나타나는 번역 문체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유형을 짚어 보았다. 그 결과, 동일 어휘를 중심으로 본 남녀 번역 문체 연구를 하여 얻어진 결론은 원천 텍스트에서의 동일한 어휘를 목표 텍스트에 여성과 남성이 각각 번역을 하였을 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자어 사용에 관한 남녀 문체 연구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원문을 번역할 때, 어떠한 번역 문체를 띠며 번역하는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또 여성이 전체적으로 한자어를 적게 사용하며 동일한 어휘를 쉽게 고유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찾을 수 있었다. 제 3장에서 밝혀낸 번역 문체 규칙은 여성이 번역을 할 때에 한국어 여성어 특성에서 언급한 여성어의 특성을 유지시켜 번역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번역 문체가 남성보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하려 하는 여성 언어 특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어조를 낮추어서 표현하며 격식보다는 비격식적 형식을 선호하는 여성어의 특성은 번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목표 텍스트에 사용되는 여성작가의 문체가 비격식체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도 여성 번역 문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4. 결론

한국의 번역에 대한 인지도와 번역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시작된 여성언어 및 여성문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플로투와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여성적 번역 문체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성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그것과 번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고등교육으로 인한 여성 번역가의 증가는 한국 번역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미나 중요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특유의 번역 문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국 번역계가 중시해야 할 성장 과정의 단계이자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번역 문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논문은 문학작품 번역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알맞은 번역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위해 『제인 에어』,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갯츠비』 다섯 편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자어와 관련된 남녀 번역가의 문체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에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한자어 사용이라는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한자어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화의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귀여운 비격식적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뢰와 동질감을 고양하며 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보통이다.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한자어 사용 경향은 이러한 성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처럼 번역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렇듯 여성 특유의 번역 문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번역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고 문헌

### (1) 분석 텍스트

Austen, Jane (2003)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Books.

정은경 옮김 (2004) 『오만과 편견』, 오스틴 제인. 서울: 청목사.

홍건식 옮김 (2002) 『오만과 편견』, 오스틴 제인. 서울: 육문사.

Bach, Richard (1973) *Jonathan Livingston Seagull*,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이덕희 옮김 (2005)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하서.

오영민 옮김 (2004)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도로시.

신동운 옮김 (2005)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청목.

송은실 옮김 (2003)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소담출판사.

Brontë, Emily (2003) *Wuthering Heights*, London: Penguin Books.

김은정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브론테, 에밀리, 서울: 일신출판사.

안동민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브론테, 에밀리, 서울: 범우사.

Brontë, Charlotte (2000) *Jane Eyre*, New York: Oxford UP.

김문영 옮김 (2003)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하서출판사.

김성구 옮김 (2004)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청목.

김수연 옮김 (2004)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일신.

박종학 옮김 (2003)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홍신문화사.

Fitzgerald, F. Scott (2000) *The Great Gatsby*, New York: Oxford UP.

김연희 옮김 (2002)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하서출판사.

김의승 옮김 (2003)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뜻이 있는 사람들.

김옥동 옮김 (2003)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민음사.

유혜경 옮김 (2003)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소담출판사.

Hemingway, Ernest (2003) *The Old man and the Sea*, New York: Simon & Schuster.

이경식 옮김 (1999)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문예출판사.

이혜리 옮김 (2005)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청목.

황중호 옮김 (2005)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하서출판사.

홍미란 옮김 (2003)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도로시.

Henry, O (1980) *The Last Leaf*, London: Routledge.

강영길 옮김 (1994)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일신 서적출판사.

김선영 옮김 (2003)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좋은 생각.

박수남 옮김 (2002)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육문사.

신현미 옮김 (2003)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도로시

## (2) 참고 문헌

구현정 (2004) 『대화의 기법』, 서울: 경진문화사.

그레이, 존 (200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옮김. 서울: 친구미디어.

김선희 (1992) 여성어에 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 19.

민현식 외 (2003) 『언어와 사회』, 서울: 역락.

민현식 (1995)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바스넷, 수잔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김지원, 이근희 옮김, 서울: 한신 문화사.

베이커, 모나 (2005) 『말 바꾸기』, 곽은주 외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쇼월터, 일레인 (2004)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신경숙 외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근희 (2005) 『번역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이석규, 김선희 (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대전: 목원대 출판부.

이을환 (2003) 『한국어 여성 언어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정희 (2003) 『여성의 글쓰기, 그 차이의 서사』, 서울: 예림기획.

임규홍 (2003) 『젠더를 말한다』, 서울: 박이정.

- 임흥빈 (1993) 『국어의 여성어』, 서울: 국학자료원.
- 장영희 (2000) 「20대 남녀 사용 어휘의 대비적 고찰」, 『화법연구』 2, 한국화법학회.
- 전혜영 (1999) 『여성대상 표현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 태학사.
- Baker, Mona (1990) *In Other Words*, London: Euroterm.
- Bassnett, Susan and Andre Lefevere (1990) *Translation, History, Culture*, London: Routledge.
- Bassnett, Susan (1998)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Bassnett, Susan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Beauvoir, Simone de (1949)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uage*, Paris.
- Brossard, Nicole (1982) *Picture Theory*, Montreal: Éditions Nouvelle-Optique, Toronto: Coach House Quebec Translations.
- Brown, Penelope (1980) *How and Why Are Women More Polite*, New York: Praeger.
- Cameron, Deborah (1997) *Language and Gender*, London: Longman.
- Cardinal, Marie (1977) *Autrement dit*, Paris.
- Coates, Jennifer (1986) *A Sociolinguistic Account of Sex Difference in Language*, New York: Routledge.
- Coates, Jennifer (1992) *Women, Men and Language*, London: Longman.
- Daly, Mary (1978) *Gyn/ecology, Metaethics of Radical Feminism*, Boston: Beacon P.
- Daly, Mary (1998) *Webster's First New Intergalactic Wickedary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Women's P.
- Flotow, von Luise (1997) *Translation and Gender*, Ottawa: U of Ottawa P.
- Francis, Wradrah (1992) *Dialectology: An Introduction*, London: Longman.
- Goodwin, Marjorie Harness (1980)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Praeger.
- Gray, John (1993)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New York:

- Harper Collins.
- Jehlen, Myra (1981) *Archimedes and the Paradox of Feminist Criticism*, New York: Routledge.
- Jespersen, Ott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ey, Mary Ritchie (1975) *Male/Female Language*, NY: Routledge.
- Kolodny, Annette (1975) *Feminist Literary Criticism*, New York: Brown
- Kramarae, Cheris (1974) *Women's Speech*, New York: Routledge.
- Kramarae, Cheris (1981) *Women and Men Speaking*, New York: Newbury House.
- Lakoff, Robin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Leet-Pellegrini, Helena M (1980)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London: Pergamon P.
- Lefevere, Andre (1994) *Translating Literature*,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Lotbinière-Harwood, Suzanne (1986) 'La Grammaire intérieure', *La Vie en Rose*, September, 34-35.
- Newmark, Peter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 Trowbridge.
- Showalter, Elaine (1971) *Women and the Literary Curriculum*, New York: Routledge.
- Showalter, Elaine (1977)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e to Lessing*, Princeton: Princeton UP.
- Showalter, Elaine (1979) *Women Writing and Writing About Women*, London: Croom Helm.
- Showalter, Elaine (1981) *Feminist Criticism in The Wilderness*, Chicago: of Chicago P.
- Simon Sherry (1996) *Gender i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Tannen, Deborah (1991)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London: Virago.

Trudgill, Peter (198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Harmondsworth: Pelican.

Yaguello, Marina (1978) *Les Mots et les femmes*, Petite Bibliothèque Payot. Paris:  
Routledge.

[Abstract]

**Female Translation Styles in Literary Works:  
With a focus on the usage of Chinese Characters**

Kim, Dong Mi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comparison between the translation styles of male and female translators, in order to decipher the presence of different translation strategies at work. While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used by both male and female translators' works, this study compares the frequency of the usage of Chinese characters by male and female translators.

Currently, in school, women are offered the same opportunity as men, in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 However, female translators prefer to utilize Korean characters, as a matter of principle, in their effort to differentiate their translation style from men, thus creating their own professional identity.

Male and female translators practice different styles of translation. Generally, the style of female translator, is that of the TL's female language, with a tendency to utilize a female language when translating from the SL to the TL.

The existence of a females' distinctive translation style, is invaluable within the world of Korean translation, as i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n important translation strategy

▶ Key Words: translation, female, Chinese character,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

김 동 미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belle-kim75@hanmail.net

관심 분야: 문학 번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8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